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양성한 지 500년, 나라가 망한 날을 맞아 한사람도 국난(國難)에 죽지 않는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애 읽은 글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든다면 참으로 통쾌할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우국지사요 대사인이요 대학자인 매천 황현(1855-1910)이 운명까지 직전 가족에게 마지막 말했던 유언이었다.

1910년 가을 일본이 조선을 삼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매천은 죽기로 각오하고 유시(遺詩) 네 수를 지어 망국의 서러움을 간절하게 읊었다.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고를 회상해보니/ 글자나 배운 사람노릇 참으로 어렵구려(秋燈掩卷嘆千古難作人間識字人)”라고 말하여 무의식한 사람이라면 나라 잃은 서러움 견디겠지만, 글자나 배운 지식인이나 망국의 서러움 참을 수 없음을 통절하게 호소하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 얼마나 부당하고 못된 것이었기에 분노를 못 참고 나라에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을 것

분통 터져 자결한 매천 황현

인가. 그때 매천의 나이 56세, 침략자 일본에 대한 독한 아픔을 목숨을 끊어 항거하였다. 아편을 먹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이, 우리 민족의 분노와 억울함은 끝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잃은 우리 조선 민족, 35년의 노예 생활에 얼마나 피맺힌 삶을 살아야 했는가. 망국 5년 전 을사조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신·의사·열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가. 왜놈의 지배 아래에서는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풍찬노숙을 마다 않으며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는가.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손국과 투쟁을 통해 끝내 우리는 1945년 조국 해방을 맞이하여 나라를 되찾고 광복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간난신고의 독립 투쟁과 몸을 바치는 희생으로 나라를 되찾았는데, 아니 선조들이 대을 잘못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 일본의 침략만으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대동령의 역사 인식은 어쩌하여 세워진 논리인가.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란 말인가. 35년의 식민지 시절, 강제 노역의 고통, 위안부로 성노예 생활을 했던 아픔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도 대통령이 해야 할 생각인가. 그런 외교를 성립하는 일을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외교란 말인가.

벼슬 한 자리 해본적도 없는 포의(布衣)의 황현, 나라가 망했다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건만, 죽을 수밖에 어떤 도리가 없다고 목숨을 나라에 바치며 일본의 침략

에 항거했는데, 아니 그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사고와 반성도 없는데, 과거를 따지지 않아야 미래가 열릴 수 있다면, 도대체 역사 원리란 무엇이란 말인가. 지하에 계신 황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민족정기란 무엇이고 민족혼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청컨대 역대의 간신전을 보시게/ 나라 위해 죽어간 애국노는 본래 없나네(請看歷代奸臣傳 賣國元無死國人)”라고 애국자들만이 나라 위해 죽어 간다는 황현의 시는 죽여가는 그들을 더욱 애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애국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들만이 멍멍거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통찰이 너무 예리하다.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조선은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일본은 조선 침략을 노골화하여, 면암 최익현의 주장에 의하면 ‘기신배의(箕信背義) 16죄’라 하여 열 여섯 가지의 약속을 어기고 의리를 배신한 죄악을 저지르며 나라를 삼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죄악만 저지른 일본, 그런 일본에게 아부하고 굴종하여 자신의 부귀 호강만 추구했던 애국·친일파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조국이 해방되고도 그들에 대한 응징이나 처벌은 이룩되지 못해 뿌리는 더욱 번지고 살아나 나라의 주류로 형성되었던 것이 이승만 독재 시대요,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 군사 독재 시절도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들 세력은 만만치 않아 오늘 나라의 형편이 이 지경이 되었다. 이제라도 황현의 애국심을 잊지 말고 민족정기와 민족혼을 살려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지식인 노릇 어렵기만 하구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그는 짓도 부리도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다. 검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의 검은 외피는 딱하게도 슬프다. 목청마저 깔깔하고 음습하다. 그를 의미하는 글자 ‘烏(오: 까마귀)는 몸이 검어 눈이 어디 있는 지 알 수 없어 ‘烏(조: 새)의 눈 부분의 한 획을 생략한 글자라고 한다.

그는 환대는커녕 배척받고 박대당하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유독 그에게 인색했다. 그의 검은 날개는 저승 사자의 옷자락이라도 된 듯 꺼리고 외면했으며, 크고 굵은 울음소리는 불행의 전조인 듯 재수 없게 여겼다. ‘까마귀 노는 골에는 가지도 말라’ 선을 그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그뿐인가. 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공연히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느니 애만 탓을 했다.

이쯤 되면 그의 명에는 송두리째 훼손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득히 먼 이야기이긴 해도 그는 태양신의 사자로서 신들의 전령임을 자부했고, 삼족오(三足烏)라 불리며 국조로

까마귀

대접받기도 했다. 견우직녀의 애뜻한 사랑에 제 몸을 내어 주기도 했으며, 어미에게 극진히 보답하는 반포지효(反哺之孝)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썩은 것들을 먹어 치워 환경 정화에 일조했고, 장대 위에 높이 올라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도 했다. 깊은 산골 외로운 노인에게 반가운 친구가 되었고, 길 가던 행인에게 뜻밖의 선물이기도 했다. 저문 들녘, 떼 지어 날아오른 그들의 군무는 얼마나 황홀하던가.

나는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적한 산길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인적마저 흩어지고 없었다. 보이는 것은 하늘과 나무와 마른 풀들, 들리는 것은 새소리뿐이었다. 새소리는 맑고 투명하고 예리하고 부드러웠다. 들는 귀도 걷는 발걸음도 덩달아 가볍해지는, 깨끗하고 아늑한 소리였다.

어느 순간 새들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천지사방엔 고요만 가득했다. 그 사이로 불쑥 한 소리가 끼어들었다. 크고 굵고 묵직한 소리였다. 나뭇가지들이 출렁 흔들리고 고요도 저만치 달아났다. 검은 새 몇 마리가 머리 위에서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까악까악까악까악... 온 산을 휘저어 놓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들은 다시 또 울었다. 까악까악까악까악... 우는 소리에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투카리 깨지듯 거칠고 둔중한 소리가 은근히 귀여웠다.

이윽고 갈맷빛에 둘러싸인 높은 산마루. 탁 트인 산정은 넓고 푸르렀다. 뜻밖에도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아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혹시 무엇에 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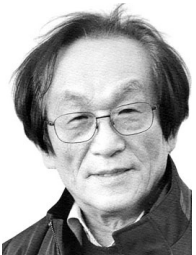
린 것은 아닐까? 사투 문환적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거나 뭔가를 먹고 마시거나 도란도란 담소 중이었다. 나는 표지석을 지나 중앙에 세워진 높다란 돌탑 쪽에 앉았다. 몸도 마음도 느슨하게 산 위의 시간을 즐겨볼 셈이었다. 높이 1500미터가 넘는 고산인데도 마치 양지바른 담장에 기댄 듯 따스하고 편안했다.

몇 발짝 떨어진 바위 위, 한 까마귀가 먹이를 쪼고 있었다. 사람들이 던져준 빵이며 꿀 파우더였다. 그는 먹는 틈틈이 이쪽을 노려봤다. 난간에 먹을 것을 올려놓으면 기다렸다는 듯 쪼파쳐 날아쳐 가곤 했다. 한 까마귀는 돌탑 위에 앉아 있었다. 돌탑 가운데 뾰족이 솟은 바위 끝에 앉아 어느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도 같았다. 그는 텅 빈 허공을 배경으로 솟대처럼 솟아 있었다. 그의 날개는 접혀 있었고, 굳게 다문 부리는 과묵해 보였다. 그의 눈은 광야를 달려온 무사의 안광인 듯 빛났으며, 그의 몸은 오묘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 보였다. 그는 정지하고 있었지만 언제라도 창공을 날 것처럼 보였다.

어떤 까마귀는 먹이를 쪼고 어떤 까마귀는 솟대가 되었다. 먹이를 쪼다가 솟대가 되기도 하고, 솟대였다가 먹이를 쪼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먹이를 쪼는 자에겐 먹이로 희롱하고, 높이 좌정한 자에선 매리를 조아렸다. 어떤 까마귀는 비루하고 어떤 까마귀는 고고해 보였으나, 둘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그 또한 뒤바뀌고 있었다.

기고

새로운 시작, 멋진 만남 - 노년의 일상



황태주
전남대의대 명예교수

‘자연 과학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지만 인문학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건전하게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이 다’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넓게 생각하면 두 학문을 아우르는 통섭의 영역에 있지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언가 모자라는 갈증에 시달렸다. 퇴임 후 소위 노년이 되어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갈증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여기저기 인문학 강좌를 찾아 기웃거리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 철학 교수를 찾았는데 니체를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걸 계기로 고등학교 시절 심취했던 니체를 만났다. 노년이 되어 만난 조인.

노년이 되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도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새로운 만남을 지속해도 좋을까? 사람들이 종종 말하듯이 시작이 바로 젊음일까? 많은 의문을 남기고 시작한 공부는 벌써 6년이 넘었고 나름 동료들과 새로운 독서회도 조직하여 유년 시절부터 읽었던 책들을 다시 섭렵하고 있다. 그 이름 ‘인문 동지’다. 인문 동지는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추천하여

들어가면서 발표하고 토론도 한다. 모두 중년을 넘어선 나이로 살아온 날들도 반추한다. 때때로 숨어 있는 작가, 혹은 숨어 있는 책방을 찾아서 나들이도 간다. 섬진강변에는 낡은 책들이 숨어 있는 책방이 있다. 때로는 책갈피에 새겨진 글들이 가장 낫답게 사는 길은 무엇이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젊음은 곧 사라집니다. 당신은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느 보험회사 광고 카피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어디서나 노인 대책이 화두이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도 앞 다투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이 우선 부정적이다. 과거에 노인은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고, 쾌락을 즐길 수 없고,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고정 관념이 있다.

학자들은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의 삶을 크게 4기로 분류하고 있다. 태어나서 대략 20세까지를 성장기, 20세부터 50세까지를 완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 50세부터 80세까지 장년기, 그리고 80세 이후를 쇠퇴기로 구분한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를 정의할 때, 대개 60세 이상 인구의 수가 얼마인가로 따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역연령(calender age)만으로 인간의 삶을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연령이 있다. 정신 연령, 감정 연령 등이 그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죽음이 찾아오듯이 반대로 정신 연령이나 감정 연령이 젊다면 그는 언제라도 맑은 바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언제라도 낭만적일 수 있으며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언제나 청년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지금 나이가 장년기가 시작되는 50세라 할지라도 본인이 20세라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해 학문에 정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30여 년간을 활동해도 80세 밖에 되지 않는다. 실로 역연령으로 나는 왕성한 사회 활동기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간에 축적한 원숙함과 신중함, 무엇보다 잘 훈련된 판단력에 의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보다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선 노년이 과거를 먹고 산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년에도 미래 지향적으로 산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미네라바의 부영이는 황혼에 날아 오른다고 했다. 또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나 후반부에 있다. 멋진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고 무대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언제 산으로 가도 아무도 서러워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멈출 것인지 걱정도 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슴 뛰게 한다. 데드라인(Deadline)이라는 말이 있다. 신문사 기사 마감 시간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초조하다.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막막할 때 더욱 초조해진다. 어디서 멈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社說

피해 눈덩이 ‘극한 호우’ 과도할 정도로 대비를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극단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잦은 비로 약해진 지반 위에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높아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호우 사망·실종자가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네 명, 세종 한 명 등 37명이고, 실종자는 경북 여덟 명, 부산 한 명 등 아홉 명이다. 이 같은 인명 피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호우 경보 속에 그제부터 이틀간 최대 200mm의 장맛비가 쏟아진 광주·전남에서 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주택·농경지 침수, 담장·축대 붕괴 등 170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주민 174명은 대피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광주·전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화정 아이파크 ‘폼수 철거’로 안전 확보하겠나

유례 없는 붕괴 사고로 여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번에는 ‘철거 범위 논란’에 휩싸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부분 철거’ 추진에 입주 예정자들이 ‘전면 철거’ 약속을 지키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구청의 묵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몇차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산의 건물 철거 계획 설명회에서 밝혀졌다. 현산 측은 애초 전면 철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주상 복합 상가인 1~3층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1단지엔 한 곳, 2단지엔 두 곳 설치되는 1~2층 규모의 근린 생활 시설(주민 공용 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 계획 전반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산의 부분 철거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입주 예정자

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철거 범위에 중대한 차이가 생겼는데도 현산 측 설명만 듣고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은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행정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철거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산 측이 철거 범위를 주거 층으로 한정된 것은 정몽규 회장이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한 약속과도 다르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폼수’라는 것이다.

현산 측은 지난 14일 해체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현산과 서구청은 지금까지 철거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그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無等鼓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외국인 가운데 독일 상인 오페르트(1832~1903)만큼 극단적 평가가 내려진 인물은 드물다. 그의 행적을 다룬 논문만도 20여 편을 헤아린다. 압도적인 평가는 제국주의 열망을 드러낸 패륜 범죄의 장본인이다. 그는 1864년 흥선대원군이 통상 교섭을 거부하자 악마와 손을 잡는다. 남양군(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꺼내 흥선대원군과 통상 거래를 관철하려 했다. 도굴은 봉분만 훼손하고 실패했다. 관을 덮은 석회가 시멘트

를 넣어 만든 것으로 추측해왔다. “중국인이 서양 음악을 무시하고 예술 전반에 대해서도 우월하다고 동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조선인은 그것의 감상법을 알고 있으며, 음악을 매우 즐겁게 듣는다. 음악적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이방인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서양 우월주의를 영보게 하는 대목도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처럼 단조롭고 처량한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거의 고음을 내지 않는다”고 썼다. 우리 악기를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

도굴범의 두 얼굴

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 산업예술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술지 ‘글로벌 문화 콘텐츠’에 게재한 논문에서 오페르트의 음악에 대한 글을 분석해 ‘한국 음악 평론을 남긴 최초의 서양인’이라며 음악 측면에서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K팝 원동력으로 꼽히는 한국인의 자질을 일찍이 알아봤다는 점에서도. 김 교수의 논문은 희대의 도굴범과 K팝 원류를 주목한 외국인, 오페르트의 두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곤혹스런 질문을 던진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